"영축산 보름달의 法, 널리 선양하자"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통도사서 추모 다례

월하(月下 · 1915~2003)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3월 25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렸다.

영축총림 통도사 노천문도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주지 원산 스님 등 스님들과 김기현 · 주호영 국회의원, 영화배우 명계남을 비롯한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이날 다례재 법문을 통해 월하 스님을 '영축산의 지지 않는 달' 이라고 칭송했다.

진제 스님은 "오늘 월하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 맞아 가풍이 한결같아 영축산에 무한한 서광을 주시니 은혜가 한이 없다. 월하 대종사의 가르침을 잇는 길은 선법을 닦아 널리 선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례에서는 월하 스님의 육성 법문, 행장 소개, 스님들의 헌다와 헌향이 진행됐다.

노천문도회 회장 성파 스님은 월하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소설책 〈영축산에 달 뜨거든〉을 봉정했다.

총 448쪽인 〈영축산에 달 뜨거든〉은 고승열전의 작가인 윤청광 씨가 월하 스님의 생애를 소설 형식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사부대중 1천여 명 침석

소설집 〈영축산…〉 봉정

세미나 열고 학술적 조명

이날 원로의장 밀운 스님은 봉은사 토지 매각과 다시 토지를 되찾는 과정에서 월하 스님이 2억원을 시주해 현재 봉은사 자리가 있음을 공개하며 생전 업적을 소개하기도 했다.

법회 이후에는 월하 스님의 수행과 포교, 복지 활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세미나가 경내 해장보각에서 열렸다.

노천문도회장 성파 스님이 3월 25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월하 스님 탄신 100주년 다례재에서 헌다를 하고 있다.

'월하 스님의 계율을 통한 수행의 재조명' 을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직접 나서 '월하 스님의 정화불사'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동명대 교수 송운 스님이 '계율정신에 입각한 월하 스님의 수행' 을, 하춘생 동국대 경영대학원 사찰 경영 주임 교수가 '월하 스님의 포교인식과 실천이념' 을, 이혜숙 금강대 교수가 '근대불교복지의 회고와 전망– 월하 스님의 자비원 설립을 중심으로' 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수행엄격 · 전법교화 거침없던 선사"

하춘생 교수, 월하 스님 포교 · 실천 이념 조명

"월하 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대중 포교를 위해서라면 거침없는 판단과 행동을 보이셨다. 이러한 포교원력 앞에서는 부처님 금란가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춘생 동국대 경영대학원 사찰경영과정 주임교수〈사진〉는 이날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 '월하 스님의 포교인식과 실천이념' 발표를 통해 스님의 포교원력을 재조명 했다.

하 교수는 "월하 스님은 통도사 대중들의 반대에도 서울 강남 천막법당에 부처님 금란가사와 자장율사 금란가사를 이운해 친견법회를 갖도록 허락하는 등 포교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며 "통도사 수련회에도 청소년 2,600여명이 몰려 노숙을 하거나 행사를 취소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통도사와 극락암 사이 밤나무 과수원을 깎아 캠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통도사는 경내에 대규모 신행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한번에 3,000여 명이 들어가는 설법전이 건립했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하 교수는 "스님은 전법교화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한편 스스로는 엄격한 수행자의 면모를 보였다"며 "스님은 사중에 손님이 찾아와 공양물이 부족하면 스스로 끼니를 굶었으며 통도사 보광선원 조실로 추대됐을 때에도 시자를 두지 않고 직접 속옷과 양말을 빨고 발우도 씻으며 방청소까지 했다. 동국대 이사장 재직 시에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이렇게 돈을 모아 포교에 희사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정화 당시에도 '청정가풍 불조혜명' 의 기치를 든 월하 스님이 있었기에 통도사 정화는 다른 사찰과 달리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소치 빙상여제 3인방 구룡마을 방문

심석희 · 조해리 · 공상정 선수 어려움 겪는 한성찬 군 격려 방문 '날마다좋은날' 홍보대사에 위촉

소치 쇼트트랙 빙상여제 3인방은 3월 2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성찬 군의 집을 방문해 옷, 신발, 가방 등을 선물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소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조해리, 공상정 선수가 무허가 판자촌이 모인 서울 강남 구룡마을을 찾았다. 불우한 환경에서도 축구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는 한성찬(경동방송통신고 2)군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4월 19일 열리는 '2014년 행복바라미 캠페인' 의 첫 발을 내딛는 의미로 3월 22일 구룡마을에서 행복바라미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활동에 앞서 세 선수는 구룡마을 앞 마당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신용카드단말기 가 내장된 모금함에 신용카드로 기부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쌀을 기증했다.

이날 세 선수는 성찬 군의 집을 방문해 옷, 신발, 가방 등을 선물하고 금일봉을 전달하고, 직접 과일을 깎아 먹으며 성찬군과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성찬 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자질을 인정받아 강남구청에서 선별한 축구 유망주로 선발되는 등 국가대표로의 꿈을 키워 왔으나 빈곤한 가정형편 때문에 축구부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한성찬군의 아버지는 한성찬군이 어려서부터 허리 디스크와 당뇨 등의 지병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대신 식당일 등을 하며 성찬군을 뒷바라지 해왔던 어머니마저 지난 해 담관암과 신장암 수술을 받아 경제적 형편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한 군은 이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 축구팀 강북FC의 후원을 받으며 선수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조해리 선수는 "오늘 잊지 못할 하루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고, 준비한 선물 예쁘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항상 파이팅하고 같은 운동선수로서 응원하겠다"고 한성찬군을 격려했다.

한 군과 동갑내기인 심석희 선수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을 한 군의 목에 직접 걸어주며 "나도 처음에 강릉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그리 좋은 환경에서 훈련한 것은 아니었다. 성찬 군은 이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훈련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하다보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성찬 군은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해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 오늘 많은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세 선수에게 행복바라미 대국민 모금 캠페인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정한신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무총장은 "선수들이 같은 또래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홍보대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날마다 좋은날은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 16개 시 · 도 108곳에서 불교계 기부문화축제인 '2014 대한민국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을 개최한다. 4월 19일 12시 개막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바라미' 를 진행하며, 수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도시에서 주요행사를 열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철도 문제, 대화 해결에 지속 관심을"

철도노조 집행부, 자승 스님 예방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철도노조 집행부가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지난해 철도파업 중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김상노 해고노동자 대표 등은 3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함께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 노동위원장 종호 스님, 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덕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시간이 흘러가며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며 "파업참여자 해고와 강제전출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노조 측에 피해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노조 자산의 가압류가 진행돼 해고자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이 끊킨 상황이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뒤에 사측은 파업참여자 130명을 해고하고 284명을 정직처분했다. 또 철도노조에 28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가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불교계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대화기구에서 원만히 해결하는데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자승 스님은 "행동으로 하면 과실이 있는 만큼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어려운 상황을 지혜와 인내로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흥천사, 서울 첫 한옥 어린이집 설립

25일 기공식… 사찰 토지 제공 · 구청 예산 지원

서울 성북구 흥천사는 3월 25일 구립 어린이집 기공식을 열고 서울시 최초 한옥 어린이집 설립 불사의 첫삽을 떴다.

서울시 최초 한옥어린이집이 성북구 흥천사에 설립된다.

흥천사(주지 정념)는 3월 25일 구립 어린이집 기공식을 개최했다. 흥천사 구립어린이집은 서울시의 '1동 2어린이집' 정책과 성북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약, 주지 정념 스님의 토지 무상 제공이 함께 맞물려 진행됐다.

2012년 5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 민관공동연대 참여신청서가 제출돼 7월 확정됐으며, 지난해 2월 조계종에 승인 후 설계에 들어갔다.

이날 기공식에서 정념 스님은 "주민들의 정성이 모인 어린이집은 성북구와 돈암동의 시설"이라며 "지역 어린이들이 자연과 동화돼 건강하게 자라 행복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에 개원하는 흥천사 어린이집은 지상2층 연면적 493㎡ 규모이다. 1층에는 원장실, 조리실, 영아반 보육실이 설치되고 2층은 교사실, 유아반 보육실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에는 교사, 조리사 등 15명이 근무하며 0~5세 어린이 85명이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미타부처님께서 남섬부주 대한민국 현지사 대전분원에 나투시다!!

현지사 대전분원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상주하시고 서방극락세계와 링크(연결)되어 있는 미타성전으로서 모든 염불행자들을 극락세계로 이끌어가는 정토의 관문입니다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대전분원 4월 정기법회 : 4월 20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7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42)525-5325

어느날 광명만덕 큰스님의 염불삼매 중 무량억종광으로 나투신 아미타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칭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여쭈신 말씀에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을 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가정이 편안하며, 만나는 인연마다 선하고 착하다. 죽음을 맞이하여 편안히 갈 수 있다.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전을 읽고 다리니 하며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칭명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그 중생의 소원을 섭수하여 버리지 않으며,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죽으면 왕생극락까지 할 수 있다네!"

현지사 '초파일 10만 봉축등' 접수합니다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는 초파일 봉축등 접수하여 부처님 회상과 인연 맺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아미타불 재일 행사 : 매월 음력 5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 음력1일, 15일, 18일(지장재일), 25일, 오전10시 30분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현지사 대전분원 미타성전 042)525-5325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